

다시 만드는 새로운 일상 - 노인 주간보호(adult day-care) 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 -

김슬기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 작업치료사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활동 참여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노인 주간보호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 참여관찰, 그리고 운영일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지속적 비교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일상적인 활동의 결여와 대인관계의 고립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였다. 노인 주간보호는 참여자에게 일상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새롭게 일상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설명되었다.

결론 : 주간보호에서 활동참여를 통한 일상의 재구성은 일과와 대인관계의 변화와 관련되었다. 노인 주간보호는 활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강과 활동참여의 연관성을 주목해온 작업치료사들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임상영역이다.

주제어 : 근거이론, 노인 주간보호, 작업치료, 참여

I. 서 론

오늘날 미국이나 아시아 및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걸쳐서 노화와 관련된 빠른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60세 이상의 노인은 12억 이상에 도달하게 되고, 2050년까지는 그 수가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는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26년에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통계청, 2005). 또한, 2004년도 노인의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유병률은 전체노인의 90.9%로 나타나 10명의 노인 중에서 9명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일상생활제한이 43.3%로 가장 많았다. 또한 1개의 만성질환을 지닌 노인은 17.1%에 불과하고, 전체 노인의 약 3/4이 최소한 2개 이상의 질환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3개 이상의 질환을 지니고 있는 노인도 전체의 54.8%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노인의 건강·의료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선우덕, 2005; 정경희, 2005).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여야 하는 기본이념으로 '건강한 노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활기찬 노화'의 의미를 노년기의 건강수명, 생산성 및 삶의 질을 연장하기 위하여 생의 전반에 걸쳐서 육체적, 사회적 및 정신적 복지를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이며 2006년도 대한작업치료학회 정책과제 지원을 받음

교신저자 : 김슬기 (infrast@hanmail.net)

|| 접수일: 2009. 3. 30 || 게재승인일: 2009. 5. 10

(선우덕, 2005; McIntyre & Atwal, 2005; WHO, 2002).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핵가족화의 현상으로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내 주 서비스 공급원이었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는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맡길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방수향과 장희정, 2007; 이재신과 전병진, 2007). 이런 상황에서 낮 동안에 장애를 가진 노인을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연환, 2007; 박종팔, 2006)

노인 주간보호는 지역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과 안녕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점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Meyer, 1922; Morsey, 1971; Rebeiro & Cook, 1999), 균형 잡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돕는다는(Christiansen & Townsend, 2004; Farnworth, 2003; Wilcock, 1998) 작업치료의 근본적인 믿음과 잘 부합한다. 이러한 작업치료가 추구하는 가치와 노인 주간보호가 가진 목적의 관련성으로 인해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관심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일부의 선행된 노인 주간보호에 대한 연구들은 치매나 뇌졸중의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주간보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치료적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로서 신체적 인지적 기능 변화, 일상생활 수행정도, 보호자들의 부담감 변화 등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방수향과 장희정, 2007; Graff et al., 2006; Graham, 1989; Jackson, 1983; Josephsson, Backman, Borell, Nygard, & Bernspang, 1995; Koh et al., 1994; Zank & Schacke, 2002). 이러한 양적연구들은 일부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거나 대조집단 구성이 어렵고 치료적 개입과 결과에 대한 계량화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들도 진행되어 왔다(Borell, Gustavsson, Sandman, & Kielhofner, 1994; Hasselkus, 1992; Sviden, Tham, & Borell, 2004; Tse, 2005). 하지만 아직도 지역사회 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참여자들의 활동참여 경험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주간보호에 참여하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그 과정의 의미를 기술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으로 “노인 주간보호에서 참여자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며, 활동참여 과정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질적 연구는 단순히 양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복잡한 연구 현상에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연구현상의 전후 맥락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인간의 생생한 경험을 표현하고 인간 삶의 경험과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연구방법이다(신경림 등, 2003; Kvale, 1996). 그리고 근거이론 접근법은 현장 연구의 한 종류로서 병원외래, 요양원 등 자연스런 상황에서 발생된 현상을 탐구하여 실제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만들어 내기위한 것이다.

적은 개인이나 집단의 실무, 행동, 신념, 태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탐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문제나 경험을 탐구하여 실무적으로 용이한 중간 단계의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김소선, 2003; 김수지와 신경림, 1996; DePoy & Gitlin, 1998; Polit & Beck, 2003). 따라서 본 연구가 노인 주간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한 소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참여 경험과 그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서울에 위치한 S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선정이 되었다. 이 기관의 노인 주간보호 이용자격은 관할 지역구에 거주하며, 만 60세 이상의 심신 허약 및 장애를 가진 어르신으로, 자립보행 및 기본적인 신변처리가 가능한 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 표본추출은 연구의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을 따랐

으며, 심층면담에는 의사소통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표현이 가능한 총 8명의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내에서는 일상생활 활동이 대부분 수행 가능한 상태였으며 연령은 65세에서 87세까지이고 서비스 이용기간은 8개월에서 2년 5개월까지였다.

3. 자료 수집

노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진행하였고, 그룹활동 운영일지와 기관의 홍보물 등을 통한 자료수집도 병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자료분석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2006년 4월 30일까지였다. 심층면담은 각 참여자에 대해 2회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확인된 내용과 범주를 탐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면담이 시행되었다. 심층면담은 주간보호센터의 일과 중 휴식시간 동안에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20분에서 40분 정도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정하여 진행되었다. 참여관찰은 자료수집 기간 동안 주 2회 주간보호프로그램에 연구자가 참여하며 진행하였다. 참여관찰 동안 연구자의 역할은 작업치료 그룹활동에서는 진행자로서, 다른 그룹활동에서는 보조자로서 진행하였다. 또한 주간보호 일과에서 벌어지는 휴식이나 식사시간, 외부인 방문 등의 일상적인 활동도 관찰에 포함되었다. 참여관찰의 내용은 현장에서 메모하거나 일과 후에 기록하여 현장노트를 작성하였다. 참여자의 활동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로서 그룹활동 운영일지와 기관 소개책자 등을 참고하였다. 그룹활동 운영일지는 각 그룹활동 진행자가 매회의 활동 후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자료수집기간 동안 작성된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가 중요하다(Polit & Beck, 2003).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시행에 앞서 연구의 내용과 진행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으며, 심층면담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이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에만 사용하였으며 참여자와 관계되는 고유명칭이나 개인적인 인격 노출에

해당 되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 참여자의 신상에 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4.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참여자들과 진행한 면담기록과 참여관찰의 과정에서 작성된 현장노트 그리고 활동일지 등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해 읽으면서 연구 질문과 관련된 개념을 이끌어내고, 이 개념들을 범주들로 묶는 개방코딩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범주들 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들을 근거이론의 패러다임모델에 따라 분류하는 연결코딩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범주들 중 연구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핵심범주를 찾아내는 선택코딩을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에 대해 유형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세 명의 참여자로부터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진행하였고, 본 연구 내용에 대해 경험 있는 동료 작업치료사와 질적 연구자들에게 동료 보고(peer debriefing)를 시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분석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참여관찰 및 그룹활동 운영일지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본 연구의 연구 질문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면서 115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34개의 하위범주로 무리 지었고 다시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간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한 범주들 간의 연결과 분석을 통해 볼 때,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노인은 신체적 기능 감퇴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 상실로 인해 대인관계의 고립과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참여자들에게 노인 주간보호서비스는 규칙적이고 다양한 일상 활동과 바람직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여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게 하고,

다양한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참여자들은 협조하기, 적응하기, 거리두기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자신의 일상을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표 1).

2. 핵심범주 : 일상의 재구성

본 연구에서 제시된 범주간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과 통합을 통해, '주간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를 가진

표 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인과적 조건	대인관계의 고립 일상활동의 부재	교제가 없음/ 의기소침해짐/ 혼자됨 지루함/ 불규칙한 일상/ 집안에만 있음
맥락적 조건	신체적 기능감퇴 가족지지의 상실	활동제약/ 사고의 위험 가족간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현상	관계맺기 일상 만들기	친구 맺기/ 동료들과의 교류/ 직원들과의 교류 준비하기/ 일정을 계획함/ 챙기기/ 새로운 일이 생김
중재적 조건	일상활동 참여 바람직한 환경	출석과 귀가/ 점검을 함/ 그룹활동에 참여함 편의시설/ 직원과 봉사자의 보조/ 만남의 장소
작용/상호작용 전략	협조하기 적응하기 저항하기	성취감을 느낌/ 서로의 처지 이해함 상황을 받아들임/ 익숙해짐 거리를 둠/ 동료 및 직원과의 갈등
결과	일상의 변화	자신의 일을 가짐/ 상황을 다른 사람과 공감함 대인관계의 형성/ 다양해진 일과/ 정례화된 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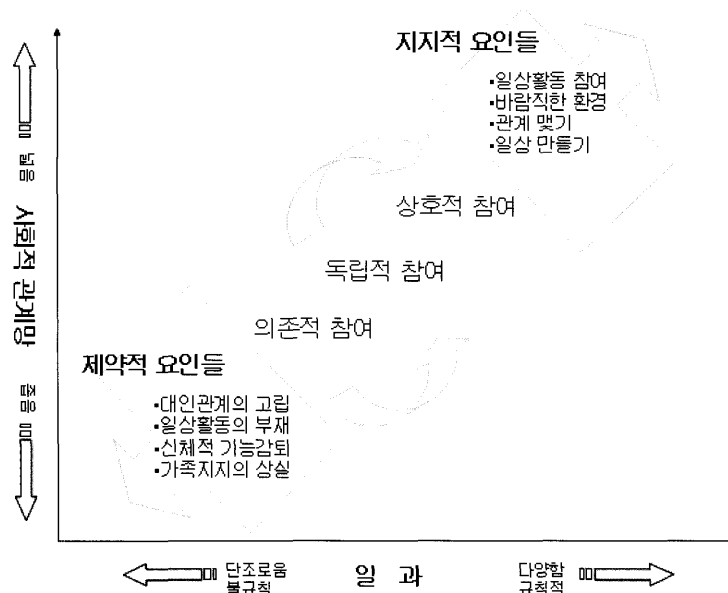


그림 1. 노인 주간보호에서의 일상의 재구성 모델

노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범주는 ‘새로운 일상 만들기’으로 파악되었다. 즉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과 가족과 주변인들의 지지 상실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무료하고 불규칙한 일상을 보내게 되고 지속적인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이 주간보호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정례화된 일과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장애노인이 이전에 갖고 있던 일상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주간보호 활동참여의 전체적인 과정은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노인 주간보호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재구성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가족의 지지 상실, 신체적 기능의 저하, 일상 활동의 결여, 고립된 대인관계 등의 제약적 요인들로 인하여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과 무료한 일과의 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일상을 살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가 주간보호시설에서 활동프로그램, 만남의 기회, 정례화된 일과, 편리한 주변환경 등의 지지적 요인들을 경험하여 점차 자신의 사회망을 넓히고 풍부한 일과의 상태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구성해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의존적 참여, 독립적 참여, 상호적 참여라는 단계적, 순환적 활동참여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주간보호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시간에 맞추어 주간보호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된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구성원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주간보호 활동참여를 통한 ‘일상의 재구성’은 일과와 사회 관계망이라는 두 요소의 변화와 관련된다. 두 요소에서의 변화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정례화된 일과의 회복

가정에서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에서의 여러 일들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주간보호를 오기 전에는 무료하거나 불규칙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빠르게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의 생활방식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들은 노후에 자녀의 보살핌을 받고 집안에서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갖춘 사

람으로 존중받는 존재였으나, 무능력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며 저하된 자존감을 보이고 있었다.

“어릴 때는 그리 착했던 애들이 지금은 내가 집에 있으면 식구들이 날 귀찮아하고 밥벌레처럼 여겨, 뻘 뻘지게 일해서 애들은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어서 빨리 죽어야지, 여러 사람들에게 신세나지고.(참여자 A)”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조금 있다가 약 먹어야 하니까 점심 챙겨먹고, 졸리면 자고, 밤에는 드라마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면 하루 가는 거지.(참여자 H)”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주간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노인들은 주간보호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날의 기후에 맞춰서 옷을 골라 입고, 몸을 단장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긴 후 주간보호에서 오는 버스 도착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서게 된다. 또한 노인들은 정례화된 주간보호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일상의 습관들을 형성하여 이전의 불규칙한 식사나 수면 습관이 주간보호에 다니게 되면서 규칙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아침에 매일 아홉시에 집 앞에 나가서 있으면 차가 나를 데릴러 오지. 어린애들 학교 다니는 것 처럼 매일 나올 곳이 있어 좋아. 여기서 밥도먹고 공부도 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보면 하루가 금새 지나가거든.(참여자 B)”

대상자 C는 책상에서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옆에 앉아서 무엇을 적고 있다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잠깐 쑥스러운 표정으로 “집에 가면 아들이 물어봐. 오늘 여기서 뭘했냐고. 내가 기억력이 나쁘니 금방 했던 것도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오늘 했던 일들을 적어가는 거야”라고 말한다.(현장노트)

“예전에는 나가고 싶어도 혼자서는 위험해서 나갈 수도 없어서 집에만 박혀 있으니 화장을 하거나 따로 옷을 챙겨 입거나 할일이 없었는데. 여기에 오면 다른 여러 사람들 하고 만나게 되니 그런 것도 신경이 쓰여 챙기게 돼.(참여자 F)”

2)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또 다른 어려움은 대인관계의 고립이다. 특히 이동에 문제를 야기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사람들과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게 하고,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친교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진다.

“예전에 알든 친구들은 이제 만나지를 못해. 집 밖에는 나가기가 무서워, 혼자서는 버스나 지하철도 힘이 들어 못타니까. 자식들도 궁금해도 친구들이 보고 싶어도 찾아 갈 수가 없어.(참여자 F)”

“이곳에 다니기 전에는 집에서 낮에도 그냥 잠만 자게 되고 하루 종일 시간이 가지 않아 답답하고 지루해 죽을 지경이었어. 가족들도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나하고는 상대를 잘 안하니 별 이야기 할 시간도 없어. 집안에서 날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자꾸 멍청해지는 것 같더라구.(참여자 C)”

주간보호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대시킨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본 연구대상의 주간보호에 참여하기 전에는 서로를 알지 못했으며 주간보호에 참여하면서 서로가 친구가 된 경우였다. 또한 새로운 만남은 주간보호에서의 일과 이후에도 일상적인 만남을 지속하면서 더 발전되어 나가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되고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서 좀 멀리 있으면 거의 연락이 끊어지는데.. 그래도 여기에 오면 여러 사람을 새로 보게 되니 좋아..그중에 맘 맞는 친구도 만나서 좋은 일이나 속상한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도 보내고, 노래 가르쳐 주는 여자선생도 참 좋고(참여자 H)”

“여기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보면 내 처지만 나쁜 게 아닌걸 알았어. 이곳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비슷한 처지거든. 이곳에서 어울리다가 집에 가면 저녁에 잠도 잘 오고 예전에는 낮에 있으면 잠만 자게 되서 밤에 잘 못 잤거든.. 그리고 서로 정도 쌓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면 집으로 연락 해주는 친구도 생겼어.(참여자 E)”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주간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일과들을 접하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초기 주간보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혼란스러움과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인 정례화된 일상의 경험과 반복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며 전체적인 과정에서 주간보호에서의 활동참여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일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일상의 변화는 각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정도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각자의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활동참여 과정에서 건강과 안녕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건강의 악화와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응, 미비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해 활동참여에 있어 거부감이나 의존성이 지속되기도 한다.

3. 장애노인들의 주간보호 활동참여의 유형

본 연구에서 주간보호시설 장애노인들이 주간보호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활동참여의 유형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참여자들의 신체기능의 변화, 시설의 지지 환경, 적응 정도에 따라서 “의존적 참여” “독립적 참여” “상호적 참여”의 단계적 과정으로 순환적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

표 2. 활동참여 유형과 특징

특 징 \ 유 형	의존적	독립적	상호적
활동에 대한 기대	회피	회복	어울림
활동의 의미	괴로움 / 억지로 함	배움 / 치료	위로가 됨
동료와의 관계	외면	자기중심적	협조적

1) 의존적 참여

장애로 인한 기능적인 제약이 심하거나 초기 참여자들은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낯설어 하며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활동참여를 거부하기도 한다. 단순한 활동들에 대해 자신을 우습게 본다고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활동들을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활동 참여를 거부하고 프로그램실을 나가기도 하고 혼자서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거실 옆 창가 소파에는 늘 졸고계신 치매 남자 노인이 있다. 간혹 눈을 뜨며 지나가는 노인들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낸다. 그룹활동이 시작되면 진행자가 나와서 참여하도록 이름을 부르지만 노인은 별로 반응이 없다.(현장 노트)

2) 독립적인 참여

독립적인 활동 참여 유형은 주로 개별적인 과제를 완수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참여자는 주간보호에서의 그룹활동들에 대해 그 과정을 즐기기도 보다는 기능적 회복과 같은 훈련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를 통한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하고 공동의 과제를 통해 상호대인관계기술의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뭐 그냥, 똑같은 것을 두들기거나 흔드는 것인데, 그거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나 할 만하지 나한테는 별로 맞지 않지만. 그래도 선생이 도와주니 따라서 해보는 거야.(참여자 A)”

3) 상호적인 참여

상호적인 참여 수준의 참여자들은 동료들이나 시설 직원, 프로그램진행자와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을 즐기며 활동에 참여한다. 상호적인 참여에서는 서로 간에 격려하고 칭찬하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며 때로는 경쟁적이거나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다. 상호적인 참여는 주로 참여자의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이 적은 경우에 나타나지만,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대인관계 기술의 개

발을 통해 상호적인 활동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서 활동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면 상호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난 그림을 하나도 못 그렸는데 여기서 배우니 재미도 있고 보람이 있어, 시간도 잘 가고, 지난 번에 만든 것은 손주 녀석이 자기 달라고 야단이었지.(참여자 D)”

누군가 프로그램 후에 집에서 가져온 약간의 먹을 거리를 꺼내 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한 어르신이 나서서 “콩 한쪽도 나눠먹어야 해” 하시며 방안에 있는 사람 수에 맞게 과자를 잘라서 각자에게 나눠주었다.(현장 노트)

주간보호에서의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활동 참여의 유형으로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갖고 있는 반면에 주간보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욕구에 충분히 부합해서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은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한 직원의 인원, 한정된 재정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기관의 입장에서 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와 통제에 용이한 형식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해 나가려는 경향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IV. 고 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 주간보호는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에게 정례화된 일과와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참여자들의 활동참여는 자신의 일상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상의 재구성은 참여자의 일과와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와 관련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신체기능의 변화, 시설의 지지 환경, 적응 정도에 따라서 의존적인 참여, 독립적인 참여, 상호적인 참여유형을 보여주었다.

노인 주간보호가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킨다는 본 연구에서의 지적은 선행된 관련연구의 결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Sviden 등(2004)은 노인주간보호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집에 고립된 노인들에게 주요한 만남의 장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Tse(2005) 역시 노인주간보호가 친목도모와 활동의 기회를 노인들에게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Hasselkus (1997)은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치매노인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주간보호시설에서의 활동은 작업적 공간이라는 모델로써 치매노인들에게 안녕을 제공하는 매개체가 됨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주간보호시설에서의 확실적인 세팅이 참여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그룹활동이 참여자들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 적용되기도 한다는 점과 지나친 통제와 관리는 치매노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Borell et al., 1994; Hasselkus, 1992). 본 연구대상 기관에서도 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규칙을 강조하는 습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과 일관성을 갖춘 정제화된 일상은 특히 치매를 가진 초창기의 참여자들이 환경에 적응해나가며 일상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Gitlin & Corcoran, 2005; Nygard, 2004).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간보호 활동참여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일상의 재구성은 일과(daily routine)와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s)이라는 두 요소에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러 작업치료 연구들에서 균형 잡힌 일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찍이 Meyer (1922)가 일, 휴식, 놀이, 잠 등의 일상 활동 사이의 균형이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Willcock(1998)과 Wilson(2005)도 건강과 안녕에 기여하는 작업 균형(occupational balance)의 중요성을 지적해 오고 있다. Ludwig(1998)의 연구에서는 독거노인들의 경우에 가족과 함께 생활할 때나 일을 할 때에 비해 감소된 일상 활동을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Farnworth(2003)의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경우에 건강한 노인들에 비해서 수동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의 시간 이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참여자들이 균형 잡힌 일상을 유지하도록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상의 재구성에 대한 또 다른 요소로 지적한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역시 주간보호시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Reynolds와 Lim(2005)은 노인들에 있어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노인들의 외로

움과 고립감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고 Berkman와 Kawachi(2000)는 사회적 관계망이 건강, 사망, 질환 장애등이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작업치료사는 참여자들에게 “당신이 매우 아플 때, 누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참여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치료사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참여자들의 활동참여 유형 분석에서 제시한 의존적 참여, 독립적 참여, 그리고 상호적 참여의 구분은 다소 겹치기도 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룹활동 과정에서 각각의 유형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의존적 참여는 Borell 등(1994)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그룹활동을 같이 하면서도 실제적인 참여가 없는 유사참여(quasi-participation)라고 표현한 유형과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관찰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참여자들을 흔히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참여자들은 개별적인 평가와 개별화된 접근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부분이다. 독립적 참여와 상호적 참여의 구분은 보다 어렵다. 이 두 유형은 주로 참여자 자신의 입장에서 그 활동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독립적 참여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신체적 회복을 기대하고 치료적 의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호적 참여는 활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기대하는 경우이다. 주간보호에서 초기 적응단계를 지나면서 참여자들이 기능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독립적 참여 유형의 활동참여를 보이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좀 더 주간보호에 참여한 기간이 길고 충분히 적응기간을 거친 참여자들의 활동참여는 상호적 참여 유형으로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들은 참여자들의 신체기능의 변화, 시설의 지지 환경, 적응 정도에 따라서 순환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활동참여 유형들에 있어 좀더 고려해 볼 문제는 문화적인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노인은 도움을 받고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유교적인 전통사상의 뿌리가 깊다. Kondo(2004)는 작업치료의 임상에서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야함 주장하고 하면서, 북미문화에서 강조하는 독립성의 개념이 일본에서는 그다

지 중요하지 않고 상호성의 개념이 더 잘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Whiteford와 Wilcock(2000) 역시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문화적으로 서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한국의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자립적인 것보다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에 더 큰 만족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인 주간보호에서 작업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주간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새롭게 일상을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노인 주간보호 활동이 얼마나 참여자에게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일상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의 재구성”의 두 요소인 “일과”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평가는 주간보호의 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임상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의 일상에 대한 평가는 Farnworth (2003)가 제안했듯이, 시간이용을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일과표와 같은 단순한 도구를 이용해 비교적 쉽게 평가해볼 수 있고 작업 질문지(Occupational Questionnaire)나 The NIH Activity Record를 활용해서 시간이용과 활동내용에 대한 좀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Kielhofner, 2002).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평가는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그 사람의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도식으로 표시해 볼 수 있다(Borg & Bruce, 1991; Reynolds & Lim, 2005). 또한 사회적 관계망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Cyram, 2007).

인간작업 모델에 따르면, 작업수행에서 한 개인의 습관화된 형식은 습관과 역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Forsyth & Kielhofner, 2003). 습관이 반복된 일과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역할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만들어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의 발견은 인간작업 모델과도 잘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표 3).

표 3. 인간작업 모델과 일상의 재구성 모델의 비교

인간작업 모델		일상의 재구성 모델
습관	↔	정례화된 일과
역할	↔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

둘째로, 노인 주간보호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 작업치료의 일부이다. 따라서 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작업치료는 개별화된 접근부터 그룹활동, 지역사회활동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기능과 역할을 갖는다. 하지만 노인 주간보호에서 작업치료의 기능과 역할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1986), 한국에서는 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에 작업치료사들의 개입은 부족한 실정이다. Osorio(1993)에 따르면 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작업치료의 기능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평가와 치료와 같은 직접 서비스에서 상담과 교육과 같은 간접 서비스까지 다양하며 노인 주간보호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는 임상 치료사, 프로그램 조정자, 사례관리자, 상담가, 행정가, 교육자, 연구가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 주간보호는 활동참여를 통해 장애를 가진 노인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작업치료의 철학적 배경과도 많은 연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Mandel, Jackson, Zemke, Nelson과 Clark(1999)이 미국 LA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라이프스타일 재설계 프로그램의 적용사례처럼, 작업치료사는 주간보호시설 안에서의 참여자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과 함께 참여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인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그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S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그리고 그룹활동 운영일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주간보호시설에서 활동참여를 통해 제한된 일상과 대인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일상 만들기’라는 핵심범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일상의 재구성은 참여자의 일과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변화로 설명하였다. 주간보호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의 활동참여 유형은 의존적 참여, 독립적인 참여, 상호적 참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신체기능의 상태, 지지 환

경, 적응 정도 등에 따라 순환적으로 변화하였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로 인해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진 노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해 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작업치료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다 의미 있는 접근들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작업치료사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참 고 문 헌

- 김소선.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 탐구*, 12(1), 69-81.
- 김수지, 신경림. (역) (1996).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연환. (2007).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인력서비스 현황. *대한간호학회지*, 37(4), 613-623.
- 박종팔. (2006). 노인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에 관한연구. *노인복지연구*, 31, 251-281.
- 방수향, 장희정. (2007). 노인 만성 질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와 가족간호자의 부담감. *대한간호학회지*, 37(1), 134-144.
- 선우덕. (2005). 노인보건사업의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106, 81-89.
- 신경림, 장연집, 조영달, 김남선, 강문정, 강현숙 등. (2003). *질적연구 용어사전*. 서울: 현문사.
- 이재신, 전병진. (2007). 노인요양시설이용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사전조사. *그림자·치매작업치료학회*, 1, 7-15.
- 정경희. (2005).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주요조사결과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01, 49-65.
- 통계청. (2005). *2005 장애인구 특별 추계*. 서울: 통계청.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1986). Occupational therapy in adult day-care.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0, 814-816.
- Berkman, L. F., & Kawachi, I. (2000). *Social epidem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Borell, L., Gustavsson, A., Sandman, P., & Kielhofner, G. (1994). Occupational programming in a day hospital for patient with dementia.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14, 219-243.
- Borg, B., & Bruce, M. A. (1991). *The group system: The therapeutic activity group in occupational therapy*. Thorofare: SLACK, Inc.
- Christiansen, C. H., & Townsend, E. A. (2004). *Introduction to occupation: The art and science of living*.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 Cyram. *Social network analysis software*. Retrieved August 20, 2007, from <http://www.netminer.com>
- DePoy, G., & Gitlin, L. N. (1998). *Introduction to research-understanding and applying multiple strategies*. St. Louis: Mosby, Inc.
- Farnworth, L. (2003). Time use, tempo and temporality: Occupational therapy's core business or someone else's business.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0, 116-126.
- Forsyth, K., & Kielhofner, G. (2003). Model of human occupation. In P. Kramer, J. Hinojosa, & C. B. Royeen (Eds.), *Perspectives in Human occupation* (pp. 45-86). London: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Gitlin, L. N., & Corcoran, M. A. (2005). *Occupational therapy and dementia care: The home environmental skill-building program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New York: AOTA Inc.
- Graff, M. J., Vernooij-Dassen, M. J., Thijssen, M., Dekker, J., Hoefnagels, W. H., & Rikkert, M. G. (2006).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for patients with dementia and their caregivers: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ritish Medical Journal*, 333, 1184-1185.
- Graham, R. W. (1989). Adult day care: How families of the dementia patient respond.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5, 27-31.

- Hasselkus, B. R. (1992). The meaning of activity: Day care for persons with alzheimer diseas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6, 199-206.
- Hasselkus, B. R. (1997). Occupation and well-being in dementia: The experience of day-care staff.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2, 423-434.
- Jackson, M. F. (1983). Day care for handicapped elders: An evaluation study.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 348-357.
- Josephsson, S., Backman, L., Borell, L., Nygard, L., & Bernspang, B. (1995). Effectiveness of an intervention to improve occupational performance in dementia.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15, 36-49.
- Kielhofner, G. (2002). *Model of human occupation: Theory and application* (3rd ed.). Baltimore: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Koh, K., Ray, R., Lee, J., Nair, A., Ho, T., & Ang, P. C. (1994). Dementia in elderly patients: Can the 3R mental stimulation programme improve mental status? *Age and Aging*, 23, 195-199.
- Kondo, T. (2004). Cultural tensions i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Considerations from a Japanese vantage point.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8, 174-184.
- Kvale, S. (1996). *Interview: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London: SAGE Publications.
- Ludwig, F. M. (1998). The unpacking of routine in older peopl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2, 168-175.
- Mandel, D. R., Jackson, J. M., Zemke, R. Nelson, L., & Clark, F. A. (1999). *Lifestyle redesign: Implementing the well elderly program*. Maryland: AOTA, Inc.
- McIntyre, A., & Atwal, A. (2005). Introduction. In A. McIntyre, & A. Atwal (Eds.), *Occupational Therapy and Older People* (pp. 1-13). London: Blackwell Publishing.
- Meyer, A. (1922). The philosophy of occupational therapy. *Archives of Occupational Therapy*, 1, 1-10.
- Morse, A. (1971). Involvement in the rehabilitation movement-1941-1960.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5, 234-236.
- Nygard, L. (2004). Responses of persons with dementia to challenges in daily activities: A synthesis of findings from empirical studie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8, 435-445.
- Osorio, L. P. (1993). Adult day care. In H. L. Hopkins, & H. D. Smith (Eds.), *Willard and Spackman's occupational therapy* (pp. 812-815). Philadelphia, PA: J. B. Lippincott.
- Polit, D. F., & Beck, C. T. (2003). *Nursing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London: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Rebeiro, K. L., & Cook, J. V. (1999). Opportunity, not prescription: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xperience of occupational engagement.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6, 176-187.
- Reynolds, F., & Lim, K. H. (2005). The social context of older people. In A. McIntyre, & A. Atwal (Eds.), *Occupational Therapy and Older People* (pp. 27-48). London: Blackwell Publishing.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Sviden, G. A., Tham, k., & Borell, L. (2004). Elderly participants of social and rehabilitativ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8, 402-409.
- Tse, T. (2005). Adult day groups: Addressing older people's needs for activity and companionship.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4, 134-140.
- Whiteford, G. E., & Wilcock, A. A. (2000). Cultural relativism: Occupation and independence reconsidered.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7, 324-336.
- Wilcock, A. (1998). *An occupational perspective of health*. Thorofare NJ: SLACK Inc.

Wilson, L. (2005). Activity and participation: Part2. In A. McIntyre, & A. Atwal (Eds.), *Occupational therapy and older people* (pp. 187-205). London: Blackwell Publish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Active ageing*.

Geneva: WHO.

Zank, S., & Schacke, C. (2002) Evaluation of geriatric day care units: Effects on patients and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57, 348-357.

Abstract

Restructured New Daily Living -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n Adult Daycare Program -

Kim, Seul-Gee, M.Sc., O.T.

Dept. of Community Care, Hamkegulum Health Cooperative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n adult day-care program. Through this study, we found ground materials for preparing support programs that promote elderly disabled peoples' adaptation to adult day-care and the roles of occupational therapy to be considered in such care.

Methods : A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the elderly in an adult day-care center. This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participant observations, field notes, and program diaries from December 1st, 2005 to April 30th, 2006, and analyzed them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Results : In the analysis, 115 concepts, 12 categories, and 34 subcategories were emerged from the raw data, and all are constituted on the paradigm model. 'Reconstructed new daily living' was the care category in this study and was found to be related with the change of two factors: daily routine and social network. The participants showed three types of participation: dependent participation, independent participation, and interdependent participation, and each of the participation types showed differences in expectation, meaning of activity, and interactions with peers.

Conclusion : This study explained the significanc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an adult care center, and provided strategies for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 to enhance their participation.

Key words : Adult day-care, Grounded theory, Occupational therapy, Participation